

# 제 23기 해외역사문화탐방 활동보고서

## - 대 만 -

### 1. 연수 개요

- 목 적 :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적 지식과 창의적인 비전을 갖춘 서울 사이버대학교 학생으로 성장하고 국제적 시각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 해외의 우수한 기관 및 문화 현장을 탐방, 체험함으로써 넓은 견문을 갖춘다.
- 기간 : 2019년 10월 30일 ~ 2019년 11월 2일 (3박4일)
- 연수국가 : 대만
- 숙소 : 모나코 프라자 호텔
- 시차 : -1 (대만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 2. 연수일정표

날 짜	주 요 일 정	비 고
10/30(수) 1일차	인천국제공항출발 (OZ 711) -비행시간 약 2시간 30분 국립고궁박물관 (총렬사) 스린야시장	대만도착 날씨 : 비
10/31(목) 2일차	지우편 옛거리 관광 스페인에서 소원천등날리기 징안차오 흔들다리 관광	날씨 : 비
11/01(금) 3일차	금융천 해수온천용 체험 야류해양공원 관광 발마사지 서문정거리 101타워전망대	날씨 : 맑음 서문정에서 미션활동
11/02(토) 4일차	공항도착후 면세점 관광 인천국제공항 도착 (OZ 712)	날씨 : 맑음

### 3. 연수 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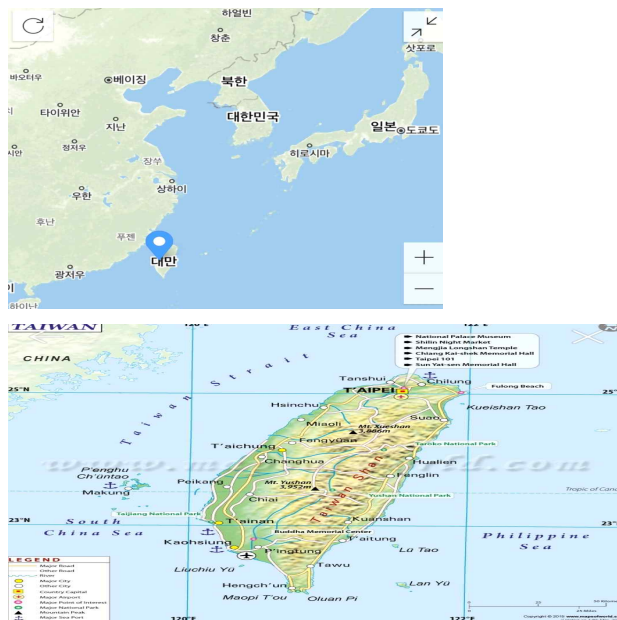
○ 국가개요



대만 (Taiwan) 수도 : 타이베이

- 언어 중국어(만다린) , 타이완어, 객가어
- 면적 359만 6천ha 세계136위 (2016 국토교통부, FAO 기준)
- 인구 2,377만 3,876명 세계56위 (2019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 GDP 5,899억 9,700만 달러 세계21위 (2018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 기후 북부지역은 아열대기후, 남부지역은 열대기후
-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 국가위치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청일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으며,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된 국가이다.

공식국호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지만, 올림픽 대회 또는 국제기구에 참가할 때는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라고도 한다. 원래는 부속제도인 평후제도[澎湖諸島], 횡사오섬[火燒島], 란위섬[蘭嶼] 등 79개 도서를 합하여 중국의 1개 성(省)인 타이완성을 이루었다. 그러

나 1949년 이래 타이베이[臺北]를 임시수도로 정하고 있는 타이완 국민정부의 지배지역이 되었고 그 범위는 타이완 및 푸젠성에 속하는 진먼섬[金門島]과 마쭈섬[馬祖島]이다. 지방정부로서의 타이완성 정부는 타이중[臺中] 교외의 중싱신촌[中興新村]에 있다. 세계 각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단교하여 국제적 고립화가 진행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섬과 그에 부속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2개 직할시, 22개 현(縣)·시(市)로 구성된다.

#### 4. 주요 활동 내용



사 립 시 장 에 서  
인천공항에서



101타워 전망대



101타워 전망대 88층 거대추앞에서



야류해양공원



서문정에서 미션활동중



타이베이 부동산사무실



타이베이 부동산 사무실 내부

### 5. 느낀 점

○ 23기 해외역사탐방팀과의 생활과 여행은 정말 즐겁고 서로에게 힘이되는 정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별로 어색하지 않고 학우로서 동질감과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룸메이트였던 보영언니도 친언니처럼 챙겨주시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도 유사한 점이 많아서 내 집처럼 쉴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의 짝꿍인 미서 언니도 편안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좋은 말벗으로 언니로 여행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서로가 산 음식을 나눠 먹고 선물로 산 물건들을 서로 구경시켜주며 알콩달콩 친근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였습니다.

○ 대만은 정식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견뎌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장개석 기념관을 방문하여 중국의 근대사를 엿볼 수 있었고 천연자원이 많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국가가 부자이고 국민들은 여유롭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반해 근해 태평양으로부터 태풍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 곳이어서 건물 등 여러 곳으로부터 재해를 방어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이번 3박4일의 해외역사문화 탐방을 통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학우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발견하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들을 대만에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